

원하면 얻는다



이 정 숙 / (주)SMG 대표이사

“**남**들은 하던 일도 접고 집안에 들어
앉을 나이에 유학을 가다니. 미쳤
군.” 20년간 다니던 방송국에 사표를 내고
8년 전 미국 유학 길에 오를 때 사람들이
입을 모아 한 말이다. 심지어 “사십대 남편
을 혼자 두고 미국으로 가다니 이혼을 독
촉하는 일이지.” 이런 말도 들었다.

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의 모
색은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그들의 충고를
뒤로하고 남편을 남겨둔 채 중학교 1학년,
중학교 2학년 아들만 데리고 미국으로 떠
났다. 가정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었지만
남편을 해바라기하며 일생을 마칠 자신이
없어 고집을 피웠다.

굳어진 머리로 영어를 익히며 공부한다
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무모한 결정을 후
회한 적도 있다. 그러나 체면 때문에 중도
에 포기할 수도 없었다.

내가 결정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.
내 인생에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오
기로 버텼다. 고비를 넘기고 다시 둘러
보니 미국의 학교 교육은 대화, 설득, 발표

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
게 되었고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
닫게 되었다. 내가 공부한 미시간 주립대
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재혼을
앞둔 남녀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대화법도
교육하고 있었다.

기업인들에게는 직위에 맞추어 상사가
부하와 함께 일하는 법, 부하가 상사 대하
는 법, 협상으로 이익을 얻어내는 법, 주주
및 고객을 설득하는 법, 심지어 의사들을
대상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 갈등 해소를
위한 대화법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
을 교육하고 있었다. 나는 이러한 교육에
참가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며 방송국에서
이십 년간 말을 다루는 아나운서로서 쌓은
경력을 활용할 기회가 무궁무진함을 깨닫
게 되었다. 미국의 국제 경쟁력이 거기에
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.

미국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동안 영어를
익히기 위해 두 아들에게 의존하면서 새삼
내 아이들이 얼마나 의젓하게 잘 자랐는지
를 확인할 수 있었다. 좌충우돌하며 미국
에서 공부를 마치고 아이들을 그 곳에 남

얼마나 독하면 사십 대에 남편을 핑개친 채 유학을 다녀오고 그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느냐는 여성들에게 나는 뭐든지 원하면 할 수 있다, 원하면 얻는다고 당당하게 말해 주고 싶다.

겨 든 채 귀국한 후에는 자유롭게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. 기업의 최고 경영자, 유명 정치인, 병·의원 원장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맞는 자기 표현법을 강의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.

한 대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. 수강생 중 한 분이 자기 아내도 나처럼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켜 독자적으로 자기 길을 개척하게 해주고 싶다고 심각하게 물어왔다. 그의 부인은 대기업 임원 부인으로서 유복한 생활을 해왔지만 자녀들이 장성해 유학을 떠나고 두 부부만 남게 되자 몹시 허전해 한다는 것이었다. 그 때문인지 시집 잘 가 남편 출세시키고 자녀를 잘 기른 팔자 좋은 친구들까지도 나처럼 신나게 살고 싶다는 한숨을 쉰다.

그 친구들은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 “사우나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해외 여행 쫓아다니는 것도 일년에 한 두 번이면 땡이야.”라며 자주 푸념을 늘어 놓곤 한다.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 양육에서 해방된 고풍력 여성들의 롤 모델(role-model)이 되어 버렸다. 나에게 특별

한 재주가 있어서라기 보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. 나는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. 비록 물안개를 뚫으며 비가 내리면 한가하게 창 밖을 내다보며 진한 향기의 헤이즐넛 커피를 마실 여유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 사우나에 매일 출근할 팔자는 못되지만 어디를 가든 누구네 엄마 대신 내 이름으로 불리며 선생님이로 불린다는 점 때문에 나는 이 생활이 즐겁다.

얼마나 독하면 사십 대에 남편을 핑개친 채 유학을 다녀오고 그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느냐는 여성들에게 나는 뭐든지 원하면 할 수 있다, 원하면 얻는다고 당당하게 말해 주고 싶다. **02020**